



With You

2018 Winter

통권 31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연결



난민과 음식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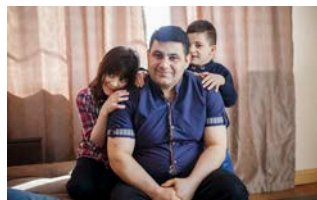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난민과 음식 04



난민배움터
헝가리 패션 모델이 된
소말리아 난민 소녀 카피아의 이야기 10



고맙습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 안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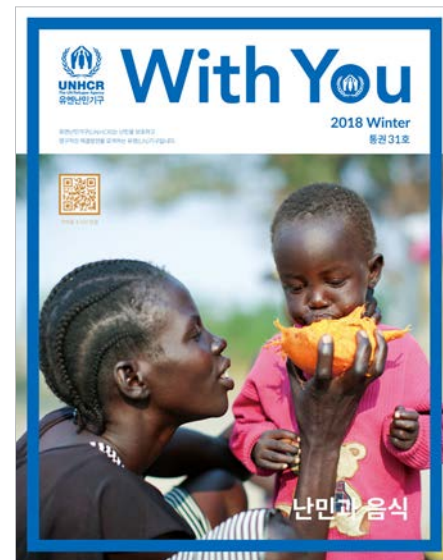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후원 신청서 15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다른 그림 찾기 16

Cover Story



일주일이 넘는 피난 여정 동안 야생 과일과 모유만을 먹고
버텼던 두 살배기 남수단 난민 테니(Teny)가 야자나무
열매로 끓여낸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내전과 폭력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에는 400만 명 이상이 주변국에서
난민으로 혹은 국내에서 실향민으로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 UNHCR/Rocco Nuri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8년 12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난민보호 캠페인 —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

03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

난민들의 겨울나기

고향 시리아 알레포가 분쟁으로 더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자, 아미라(Amira)와 남편 하마드(Hamad)는 주변국 레바논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서 딸아이 아마니(Amani)를 낳았습니다. 난민의 삶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제 부부에게는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과 책임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딸아이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아미라는 레바논 베카 벨리 난민촌에 있는 가족의 임시 거처를 최대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노력만으로는 매서운 겨울 추위로부터 딸아이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겨울나기 지원(Direct Winter Assistance) 캠페인을 통해 아미라와 같은 난민 가족들을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난민 가족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약품과 겨울옷, 식량과 연료 등 겨울 동안 가장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난민 가족들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선물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식으로 난민 가족뿐만 아니라 난민이 머무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받은 도움이 없었다면 집공간을 따뜻하게 할 수도, 딸아이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시리아 난민 아미라

아미라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겨울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아미라의 가족은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아미라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세요.

①



난민 가족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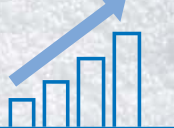
이 캠페인은 난민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난민 가족들은 이 캠페인을 통해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지원 방식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난민과 음식

생명의 한 끼, 자립과 희망의 한 끼



난민의 음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오늘 어떤 음식이 놓여 있나요? 맛있고 영양이 있는 한 끼의 식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 한 접시의 음식은 훨씬 더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적정 영양소를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피난길에 오른 수백만 명의 안전, 건강,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피난길에 오른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건강과 건강 관리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서 국제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면역력과 체력이 크게 약화되어 예방 가능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식량 부족은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이 각종 폭력과 성범죄, 성착취에 노출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과 임산부, 만성 질환자에게 영양 불균형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 부족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며 에이즈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균형잡힌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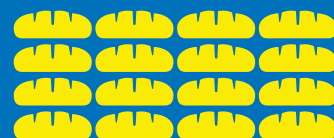
난민촌에서 성인 한 명이
하루 공급받는 영양분: 2,100칼로리
(10-12% 단백질, 17% 지방,
WFP/FAO 가이드라인 기준)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량 영양소를 공급받는
시리아 주변국 아동 수: 21,891명

21,891

16



자타리 난민촌에 매일 아침
공급하는 구운 빵: 16톤

자타리 난민촌에서
식량 교환권을
지원받는 난민 수: 8만 명

80,000



시리아 주변국에서
식량 교환권을
지원받는 난민 수:
200만 명



2 million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촌에 들어온 모든 난민 가족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양의,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일, 혹은 수주간 계속된 피난 여정 가운데 음식을 먹거나 요리할 충분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난민들은 매우 지치고 병약한 상태로 난민촌에 들어옵니다. 아동은 특히 영양실조에 취약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약(MUAC) 밴드를 이용해 난민촌에 들어온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검사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치료식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임신부 및 여성에게 끼치는 피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모는 임신 전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은 영아 수유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아이의 건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성과 아이들과 같은 취약 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들이 긴급구호 상황 가운데 필요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관리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난민 가족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난민의 영양 상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강 정보 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 정기 설문조사, 영양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과 같은 많은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식량 배급뿐만 아니라, 식량 교환권을 통해서 난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을 포함해, 시리아 주변국에서는 2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이 식량 교환권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앙골라 난민촌에 들어온 난민 아기가 영양실조 검사를 받고 있다.
© UNHCR/Omotola Akindipe



에티오피아 돌로아도 난민촌에서 소말리아 난민 아동들이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다.
© UNHCR/Gloria Puertas



부룬디 난민 소년이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 UNHCR / M. Bulow-Olsen

“난민들은 놀라울만큼 강인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식량 부족은 수천 난민 가족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권(The Right To Food)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어떤 난민도 굶주린 채 잠들지 않도록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음식으로 자립을 꿈꾸는 난민 이야기

이처럼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적인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음식을 통해 자립하고 미래를 꿈꾸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① 오렌지 레스토랑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시리아 난민

나빌의 이야기

“레스토랑 이름은 시리아어로 ‘오렌지’를 뜻하는 ‘나랑쥐’로 지을 겁니다. 제가 떠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는 모든 정원에 오렌지 나무가 있기도 하고, 시리아 요리 중에는 오렌지 꽃을 비롯해 요리에 오렌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시리아를 떠나 2년 전 가족과 함께 프랑스 오를레앙에 정착한 나빌(Nabil)은 늘 요리에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 살던 때에는 종종 자신의 와인창고에서 치즈를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 한번도 레스토랑을 오픈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미식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나빌은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전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프랑스어를 할 수 없었지만, 이웃과 지인들을 초청해 요리를 해주며 벽을 허물었습니다.”

나빌은 아내 수잔나와 열 네살, 아홉살 두 아이들과 시리아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수잔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의 연합 기구인 아랍연맹에서 일했습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내전이 심각해지면서 몇 시간 안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휴가 때 자주 프랑스로 여행을 간 덕분에, 가족 모두에게 프랑스 비자가 있었는데, 레바논에 도착하자마자 제 비자가 만료되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먼저 프랑스로 보낸 나빌은 가능한 빨리 프랑스로 건너가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자를 갱신할 수는 없었고, 육로를 통한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2016년 가족들과 프랑스에서 재회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나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동차 렌트 회사에서 세차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면 0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마음 먹었죠.”

지난해 나빌은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푸드 페스티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유엔난민기구에 연락을 취했고, 2017년 난민 푸드 페스티벌 때 프랑스 파리 섹션을 맡아 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 난민 푸드 페스티벌 참여를 계기로 요리를 자신의 새로운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빌은 프랑스 오를레앙의 한 폐점한 레스토랑 경매 입찰에 참여했고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판사가 나빌의 입찰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실내 55평, 테라스 20평 규모의 복층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꿈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아내 수잔나도 남편의 레스토랑 경영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마음 먹었죠. 열정을 일로 승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제 꿈의 레스토랑이 될 겁니다.” 나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빌이 자신의 식당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UNHCR/Benjamin Loyseau

② 프랑스에서 제빵 사업을 꿈꾸는
스리랑카 난민

니타쉬니의 이야기

니타쉬니 마티알라간(Nitharshini Mathyalagan)은
스리랑카 출신 난민입니다. 1983년부터 계속된
정부군과 타밀 반군간의 분쟁을 피해 2007년
피난길에 오른 그녀는 말레이시아를 거쳐 2015년
프랑스에 정착했고, 2017년 파리에서 열린 난민
푸드 페스티벌에 제빵사로 참여해 자신의 요리
솜씨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니타쉬니가 처음부터 제빵사였던 것은
아니고, 그녀가 지금까지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던 당시 6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던 니타쉬니는 도착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그곳에서 몇
년간 머물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그녀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고민했고, 집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두
명의 손님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집에 있던 오븐이 너무 작아 큰
오븐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오븐을 마련한 니타쉬니는 지치지 않는
노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덧
300-500명의 정기 고객도 생겼습니다.

니타쉬니는 프랑스에서 재정착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딸아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레시피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를 요리하며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제빵 기술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여성들의 재능과 능력을 지원하는 지역 스타트업
단체들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여성
사업가로서 프랑스에서 자신의 제빵 사업을 시작할
꿈을 키우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 니타쉬니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평온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여덟 살이던 딸아이는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기술을 익히고 훈련해 이곳에서 저만의 제빵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니타쉬니가 2017년 난민 푸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손님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설명하고 있다.
© UNHCR/Benjamin Loys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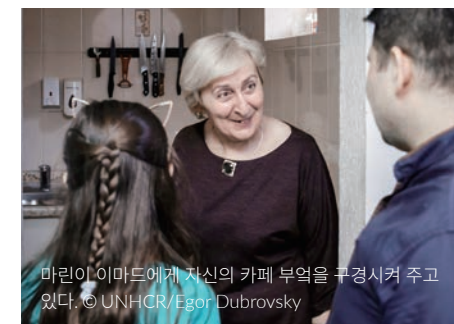
“우린 모두 똑같은 인간이에요.
국경을 너머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③ 벨라루스에 정착한
두 난민이 전하는

고향의 맛

이마드(Imad)는 자신의 고향 시리아 다라에 폭격이
시작되고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가 무너졌을 때
시리아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들의 생계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불가능할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마드의 딸 10살 자이납(Zainab)도 거리의 충격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폭탄이 떨어졌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주셨어요.”
2015년 레바논으로 피난 길에 오른 이마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다섯 아이들은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먼저 정착한
그루지야 출신 가족과 만나 함께 레스토랑을 여는
꿈만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린(Marine)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아이들은
25년 전 고향을 떠나 벨라루스로 들어왔고, 그녀는



마린이 이마드에게 자신의 카페 부엌을 구경시켜 주고
있다. © UNHCR/Egor Dubrovsky

시리아 난민 이마드는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 정착해 다른 난민과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 UNHCR/Egor Dubrovsky

2014년 고멜 지역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그루지야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처음 아무 기대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한 그녀의 레스토랑은 지역 주민의
성원으로 변창해갔고, 마린은 이제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이마드 가족을 만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난민의 삶을 경험한
56세의 마린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난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저도
난민이 되었죠. 모든 것을 새로 다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린의 가족이 그랬듯, 이마드 가족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벨라루스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어학
수업을 통해 러시아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벨라루스 사무소 대표 장 이브
부차디(Jean-Yves Bouchardy)는 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자립에 필수적이며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의 이러한 사업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사업은 난민 가족이 삶을
재건하고 스스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도우며,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식당 오픈일이 다가오자 이마드는 새로운 곳에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레바논
식당에서 일하면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 자신의
특기인 팔라펠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일 생각에
들떠있습니다. 자신이 시리아에서 처음 만들어
서빙한 요리 사진을 보여주며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든 요리예요. 모든 재료는 신선해야하고
기름이 타지않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시리아 요리를 살면서 딱 한번 먹어봤다는 마린은
이마드의 요리를 맛보며 감탄합니다.

이마드와 마린은 자신들의 파트너십이 인간은
함께일 때 더 낫다는 믿음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이든, 우린 모두 똑같은 인간이에요.
국경을 너머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헝가리 패션 모델이 된 소말리아 난민 소녀 카피아의 이야기

카피아 마흐다(Kafia Mahdi)가 부다페스트의 동상 앞에서 레오파드 무늬 드레스를 입고 온라인 패션 스토어 화보 촬영에 한창입니다.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파란 하늘 아래 새하얀 벽을 배경으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 살의 이 젊은 모델 앞에는 멋지고 화려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해보이는 성공 뒤에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향 소말리아에서부터 시작된 힘겨운 걸음걸음이 오늘날 그녀가 서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난민 소녀,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 되다

난민 소녀에서 패션모델로 성장한 카피아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얼마 전 개봉되었습니다. 헝가리 출신 도로티야 주르보(Dorottya Zurbó) 감독의 영화 ‘쉬운 수업(Easy Lessons)’은 카피아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모델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보이는 그녀이지만, 영화 제목과는 달리 고향집을 뒤로 하는 것은 특히 어머니 곁을

떠나는 일은 카피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피아는 지난달 있었던 자신의 영화 개봉에 앞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영화를 찍는 작업은 힘들었어요. 제 이야기, 제 감정, 가장 깊은 곳의 생각들까지 나누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스태프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게 편해졌어요.”

소말리아 난민 소녀, 자유와 교육을 위해 피난길에 오르다

카피아는 소말리아 남부 코롤리 지역에서 어머니, 양부, 다른 여섯 명의 형제자매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고국 소말리아에서 전쟁과 분쟁은 이들 삶의 일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그녀가 열네 살이 되자 시집을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카피아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길 원했고 교육을 꿈꿨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착한 딸, 카피아에게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조혼을 피하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카피아는 열 다섯 살에 소말리아를 떠나 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일 년여의 고된 여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세르비아를 거쳐 헝가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도착했는지조차 몰랐어요. 국경 경비대가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 없었어요. 제게 필요한 건 단지 안전한 곳이었던 거예요.”

헝가리 고아원에서 낯선 삶을 시작하다

헝가리 관계당국은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 중 성인들은 리셉션 센터로 미성년자들은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카피아는 부다페스트 부근 포트(Fot)라는 마을의 옛 고아원 건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자아이는 저 빼고 같은 소말리아 출신 아이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처음엔 모든 시설을 남자아이들과 나눠서 사용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복지사분들도 친절했고 저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헝가리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언어를 배우면 좀

더 쉽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지내던 카피아는 얼마 후 부다페스트에 있는 문제아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아이들 중 헝가리인이 아닌 사람은 카피아 혼자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여자 아이들은 소리지르고 싸우고 자해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는데도 그곳에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갔어요. 모든 과목을 수료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모델로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다

눈에 띄는 외모 덕분에 카피아는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여러번 모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신중하게 접근했고, 친구들이 추천해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현재 디자이너 제품 및 헤어 모델, 잡지 모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늘 아름다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말리아에 있을 때에는 컬러풀한 옷감들을 좋아했어요. 고향에서는 멋진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는 걸 좋아했지요.” 카피아는 모델일 외에도 영화관 대표소와 잡지사 안내접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헝가리에서 보호 지위(protected status)를 취득해 살고 있는 카피아는 앞으로 헝가리 시민권을 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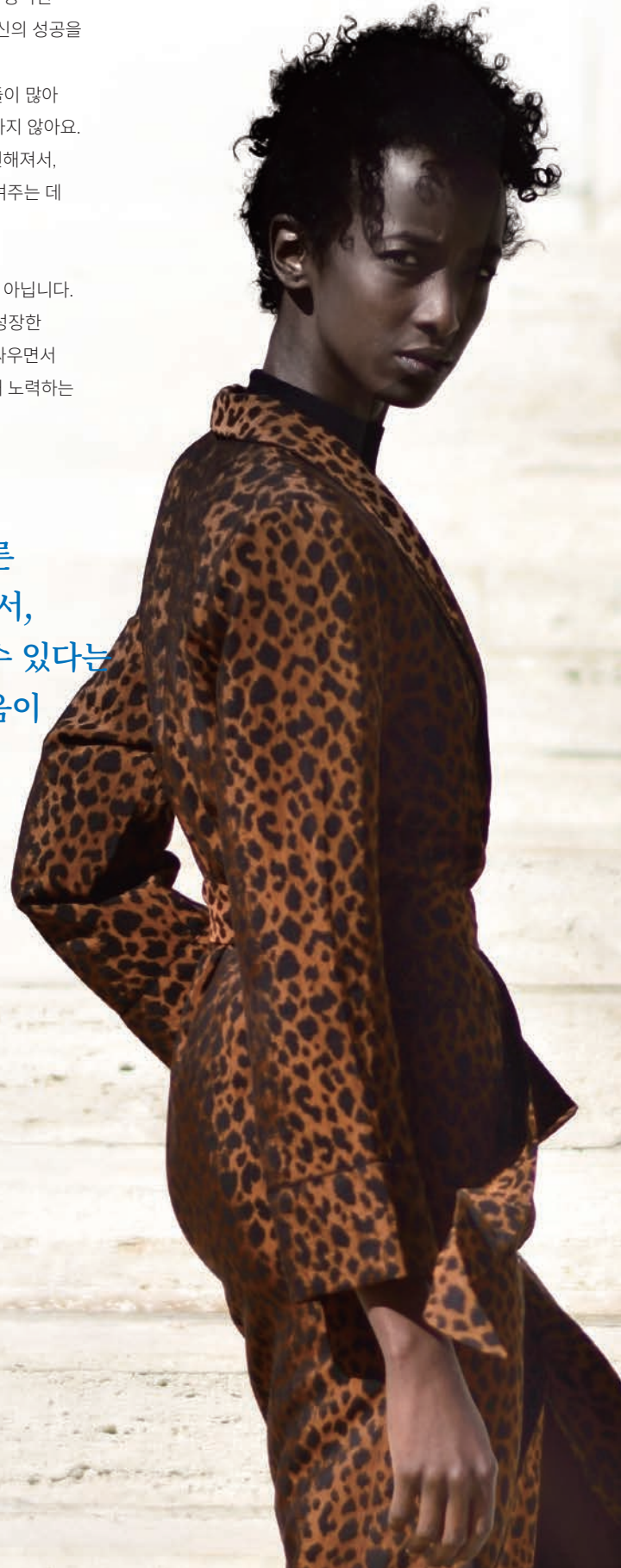
그리운 고향, 그리운 어머니, 독백으로 전하는 나의 인생기

카피아가 주르보 감독과 영화 작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감독은 카피아가 다문화와 정체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수영을 배우고, 서양식 옷을 입고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 카피아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장면은 그녀의 소말리아어 독백으로 전달됩니다. 영화는 헤어스카프를 두른 카피아가 고향 소말리아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카피아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직도 어렵지만 합니다. 영화 속 독백을 통해 카피아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엄마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저를 욕하실까요?”

가족 스커트와 길게 늘어진 귀걸이를 하고 멋진 모습으로 영화 시사회장에 나타난 카피아는 사람들의 축하와 포옹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성공의 대가로 치르는 감정적인 소모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겸손히 낮춰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화를 통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지겠지만, 전 제 자신을 스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이런 경험이 다른 난민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민은 단지 가난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피난길에 올라 멋진 패션 모델로 성장한 카피아처럼 분쟁과 폭력, 박해와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신념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이런 경험이 다른 난민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관 소식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지난 10월 23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방문 기간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을 만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유엔난민기구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난민 관련 단체들과 정우성 친선대사를 만나 국내 난민 이슈를 논하였으며, 난민 푸드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국내 거주 난민 셰프들을 만났습니다. 그란디 최고대표의 방문은 2016년 1월 취임 이후 두 번째 방한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특사 방한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 유엔난민기구 특사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졸리 특사는 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지난 5월 제주도에 도착한 500명 가량의 예멘인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졸리 특사는 또한 정우성 친선대사를 만나 유엔난민기구 특사로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난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8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참여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1월 9일 인천에서 열린 2018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에 참석했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이주기구, 녹색기후기금,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프랭크 레무스(Frank Remus) 대표는 취업준비 대학생과 경력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유엔난민기구 채용 및 인사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채용 상담부스를 통해 경력 개발 노하우와 국내 인턴 채용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난민 푸드 페스티벌: 맛나는 만남' 개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홍대 커피스미스에서 '난민 푸드 페스티벌: 맛나는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 여성 셰프들이 요리한 고향의 맛과 추억이 담긴 음식들을 맛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 콘서트, 그리고 구호물품 체험, 증강현실 체험, 포토존 및 영상관 등 전 세계 난민 현황과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3일 행사장을 방문한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난민 셰프들이 요리한 음식들은 이들의 문화와 전통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난민들은 자신만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 이라고 강조하면서, 음식을 통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독려했습니다. 사흘간의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후원자 4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 난민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이성 · 남이성교육문화그룹 기부금 전달

남이성과 남이성교육문화그룹은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남이성 평화랑에서 열린 전시 '마이그레이션스(Migrations)'로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11월 15일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희망의 날개짓, 더 나은 세상으로'라는 부제 아래 펼쳐졌던 본 전시회에서는 약 350여 명의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새'를 주제로 그린 엽서를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은 전시장 한켠에서 진행된 '희망의 새' 종이접기 체험으로 모은 금액에 남이성측의 추가 후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전시를 열었던 남이성교육문화그룹과 남이성측은 "의미 있는 전시를 통해 좋은 일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Centre KCOC 국제 인도적 지원 초급 전문가 워크숍 공동 진행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훈련센터(eCentre)는 코이카(KOICA)의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공동으로 국제 인도적 지원 초급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11월 2일 경찰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국내 인도적 지원 2-3년차 실무자 16명이 국제 인도적 지원 현장 업무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연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부터 연 2-3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2018년 2차 코이카(KOICA) 다자협력전문가 7기 국내교육 진행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9월 21일 코이카(KOICA) 다자협력전문가 7기를 대상으로 국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지은 대외협력담당관은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한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작 단편 다큐멘터리 <호다(The Unforgotten)> 을 상영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주의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코이카 다자협력전문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주요 협력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국제개발 및 다자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번 다자협력전문가 7기의 경우 유엔개발계획, 유네스코, 유니세프 총 3개 기관 15개국으로 파견되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크래프트링크와 함께 하는 '유엔난민기구를 응원하는 팔찌'

수공예품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수공예 브랜드 크래프트링크는 네이버 해피빈 펀딩을 통해 '유엔난민기구를 응원하는 팔찌'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해피빈 펀딩(happybean.naver.com/crowdFunding/Home.nhn) 사이트와 아래 큐알코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난민보호 캠페인

올겨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 키자니아(서울 잠실점, 부산 센텀점)에서 난민 구호 활동가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각 지점에서 오는 1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난민 쉼터 모형 짓기(서울점), 벽돌 집짓기 및 난민촌 지도 완성하기(부산점)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난민구호 활동과 거주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컨설팅월드와이드 컨퍼런스 참석

제인 윌리엄슨(Jane Williamso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은 지난 11월 20일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설팅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주최한 '2018 세계기아리포트' 컨퍼런스에 참석해 '예멘의 이주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윌리엄슨 법무관은 강연을 통해 예멘 분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무관심 속에 수 년 동안 기근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멘의 실상에 대해 전하며 예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018 세계 기아지수가 발표되었으며,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도 전 세계 난민 가족들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 기부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우편신청
1666-5146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출력
www.unhcr.or.kr

기타 문의
02-773-7272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18년도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는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1월 초 일괄 우편발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1666-5146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예: 후원자명/기부금영수증 우편신청/수신할 주소)

2019년 1월 초부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기부금 공제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기부코드

유형 40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단 쿼알코드 혹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긴급구호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자들에게 2,000개 이상의 가족 텐트, 12,400개 이상의 방수천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세요!”

후원 신청서

신규 후원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존 후원자 중 추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현재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 전 세계 긴급구호 — 방글라데시 로힝야, 남수단, 예멘 등 ☐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 가장 필요한 곳에

후원금액

☐ 100만 원이면, 난민 다섯 가족에게 경량텐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1회만)
☐ 50만 원이면, 난민 3,00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의료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회만)
☐ 10만 원이면, 난민 열 가족에게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기타(☐ 정기 ☐ 일시) _____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시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겨울호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정기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의 정기후원금에 위의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약정서가 본인의 정기출금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익월에 출금됩니다.

*출금일에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당월 25일(10일 출금) 또는 익월 5일(20, 25일 출금) 1회에 한해 재 출금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예금주 _____ (서명 또는 인)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림 찾기 🔍

후원자 여러분,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세요!

2018년 한 해 동안도 전 세계 난민들과
함께해준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두 사진의 다른 부분 5군데를 찾아서
사진을 찍은 후 문자(1666-5147)로
‘2018 겨울호/후원자명(후원자 아닌 경우
주소 기재)’를 기재하여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